

「性命論」을 中心으로 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宋正模*·高炳熙*·宋一炳*

I. 緒 論

「東醫壽世保元」의 第1章에 해당하는 「性命論」은 東武 李濟馬가 창안한 四象醫學의 原理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술된 「格致彙」의 哲學的·經學的 概念들은 「性命論」에 이르러서는 人體의 構造와 結合되고 재정됨으로써 거의 完成된 四象觀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四象觀은 四象醫學原理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哲學이나 醫學에 있어서의 기본 정신은 生命力の 根源을 탐구하는데에 있다 할 때, 東武의 哲學的 原理와 醫學的 原理가 동시에 담겨있는 「性命論」은 人間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해 東武가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는 기본적인 설명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說明方法은 기존의 東洋哲學과 東洋醫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東武의 獨創的인 新人間學인 것이다.¹⁾

「性命論」은 天機·人事의 宇宙論으로 시작하여 責心·責氣하라는 실천윤리적 당부로서 끝을 맺고 있는데²⁾ 그안에 本體論, 心性論, 人間觀, 實踐論 등이 演繹的 方法에 의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에 論者는 四象醫學의 原理를 理解하려는 시도로서 「性命論」에 나타난 本體論, 心性論, 人間觀, 實踐論 등을 中心으로 李濟馬의 四象觀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文 獻 資 料

1.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2.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3.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
邈也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籌策不可驕也 經綸不可矜也 行
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識見必無奪也 威
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4.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頷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5.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6.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7.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8.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頤有驕心 臆有矜心 膺有伐心 腹有夸心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腎有慾心
9. 善聲順耳也 善色順目也 善臭順鼻也 善味順口也
 惡聲逆肺也 惡色逆脾也 惡臭逆肝也 惡味逆腎也
 驕心驕意也 矜心矜慮也 伐心伐操也 夸心夸志也
 擅心奪利也 侈心自尊也 懶心自卑也 慾心竊物也
10. 人之耳目鼻口 好善無双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双也
 人之頤臆膺腹 邪心無双也
 人之頭肩腰腎 怠行無双也
11. 耳目鼻口 人皆可以為堯舜
 頤臆膺腹 人皆自不為堯舜
12. 肺脾肝腎 人皆可以為堯舜
 頭肩腰腎 人皆自不為堯舜
13.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
 而堯舜未為加一鞭也。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 而衆人亦為一少鞭也。
 人皆可以為堯舜者 以此。
 人之頤臆膺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然後人皆可以為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人皆可以為堯舜之行也 人皆自不為堯舜者 以此。
14. 耳目鼻口之精 行路之人 大同於協義故 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精 同室之人 各立於擅利故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頤臆膺腹之中
 自有不息之知如切如磋而 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則
 自棄其知而不能博通也。 頭肩腰腎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咺兮而 奪侈懶竊慾心 卒然陷之則 自棄其行而 不能正行也。
15. 耳目鼻口 人皆知也 頤臆膺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腎 人皆不肖也
16.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賢也
 人之頤臆膺腹 我自為心而未免愚也 我之免愚在我也
 人之頭肩腰腎 我自為身而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在我也
17.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有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有生也
18. 仁義禮智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士農工商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19. 慧覺欲其兼人而有教也 資業欲其廉己而有功也
 慧覺私小者 雖有其傑 巧如曹操而不可為教也
 資業橫濫者 雖有其雄 猛如秦王而不可為功也
20. 好人之善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積則道德也 道德成則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
 (以上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21.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

物之本也 良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格致彙 反誠箴)

22.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胆慮意 物四端也

(格致彙 儒略篇)

23. 天下之理義 一半之陽也 故天下之自附於理義者 據天下之半也. 天下之慾利 一半之陰也 故天下之 自陷於慾利者 亦據天下之半也.

24. 鄙者不可與禮 薄者不可與仁 貪者不可與義 懦者不可與智.

鄙者之心 恒有憤懣之心者 恒不得所欲之故也
懦者之心 恒有好樂之心者 恒欲得所欲之故也
貪者之心 恒有恐懼之心者 取於人者不為不多而恒不繼之故也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者 吝於己者不為不密 而恒不足之故也

(以上 格致彙 獨行篇)

25.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

26. 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易知 小人之心難知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多而 易知之心少者 名曰小人

27. 人心惟危 危之於欲則心出而不入也 心出而不入則 僥倖於天而 不順天也. 道心惟微 微之於怠則 身汚而不隆也 身汚而不隆則 固陋於人 而不信人也. 理心惟精 精之於利則 欲可制而 能順天而中也 順天而中者 知也. 敬心惟一 一之於敬則 怠不可驚而 能信人而正也 信人而正者 行也.

28.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子小人萬殊也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理於未來也 心欲也 見在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欲於見在也. 一同者善也 一同歸易知也 萬殊者惡也 萬殊歸

難知也.

(以上 格致彙 反誠箴)

29.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倫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四端論)

30. 人皆可以為堯舜 衆人之賢知 萬不如堯舜而其性之與堯舜同者何耶. 曰堯舜有耳目口鼻而衆人亦有 耳目口鼻 堯舜有 肺脾肝腎而衆人亦有肺脾肝腎 耳能聽 目能視 肺能學 脾能問 此衆人之性 不與堯舜同乎

曰然則其所新以異者何耶. 曰堯舜之耳目口鼻不蔽於私而善於聽視言貌 衆人之耳目口鼻蔽於私而不善於聽視言貌 堯舜之肺脾肝腎不蔽於慾而善於學問思辨 衆人之肺脾肝腎蔽於慾而 不善學問思辨 此所以異也.

(格致彙 獨行篇)

31.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萬殊也. 太少陰陽之 短長變化 一同之中有四偏 聖人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 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所以希聖也.

(四端論)

III. 總括 및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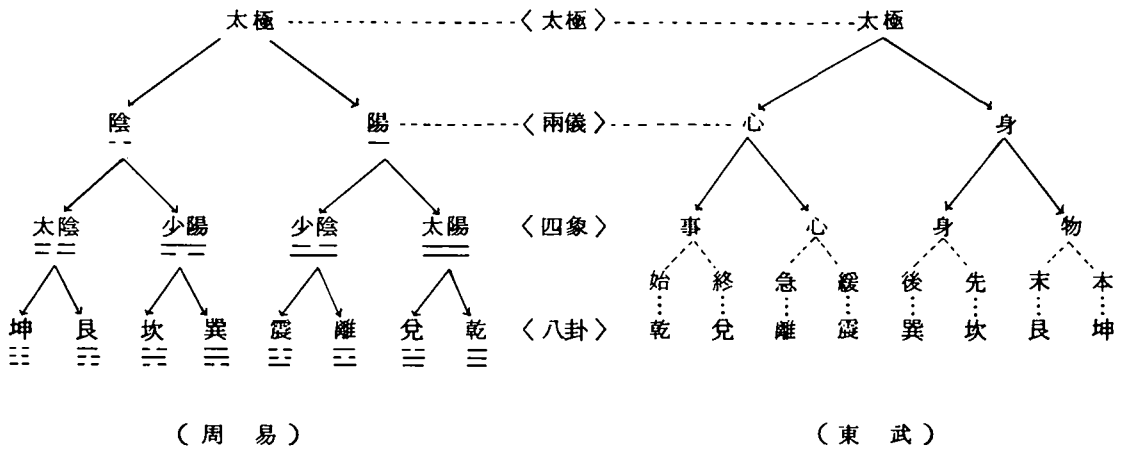
(1) 本體論

<資料1>에서 東武는 天機에 地方·人倫·世會·天時의 4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資料3>에서 各各을 邈·廣·大·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宇宙의 先天的 構造³⁾가 위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

며 이 4가지 要素란 四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

〈資料 21, 22〉에서 東武는 太極을 心이라하고 四象을 事心 身物이라하여 易理에서의 太極·兩儀·四象과는 그 概念을 달리하고 있다. 즉 易理에서는 宇宙(萬物)의 生成原理로서 太極→兩儀→四象→八卦의 分化過程을 나타드는데 비하여 東武는 이에서 더 發展하여 太極, 兩儀, 四象에 各各 實體的 概念을 부여한 것이다. 이 관계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表 1)

〈表 1〉⁶⁾



이 表에서 알 수 있듯이 周易에서의 四象은 단지 萬化의 根源인 太極이 分化하여 天地自然의 現象을 象徵하는 八卦가 形成되는 過程으로서의 四象이기 때문에⁶⁾ 四象은 八卦로, 八卦는 六十四卦로 分化할 수 있지만, 東武에 있어서의 四象은 實體的 概念으로서 宇宙 構成의 四大元素인 것으로⁷⁾, 이 四象은 더 이상의 實體的 概念으로 分化되지 않는다. 따라서 東武에게 있어서 八卦는 實體的 概念인 四象(四大元素)의 兩面像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東武는 宇宙生成의 原理를 파악함에 있어서 萬化의 根源인 太極으로부터 分化되는 과정은 四象에 이르러 終結짓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宇宙의 構造도 四元的으로 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東武에게 있어 宇宙의 本性은 四象이고 이 四象의 本性은 〈資料22〉에서 나타난 바의 四端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孟子」에 있어서 人間의 本性인 仁義禮智가 四端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四象觀을 토대로 東武의 哲學的·經學的 諸概念들은 「格致藁」에서 ‘四象類型’으로서 정립되었고 「性命論」에 이르러서는 人體의 ‘四象構造’와 結合됨으로써 ‘複合四象構造’를 完成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表 2) 〈資料 2,4,5,7〉

以上에서 考察한 바 東武의 本體論的 立場은 ‘四象類型’과 ‘四象構造’ 및 ‘複合四象構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東武의 本體論的 四象類型 속에는 進

〈表 2〉⁸⁾

天	天時	世會	人倫	地方	
	耳	目	鼻	口	觀於天
人	事務	交遇	黨與	居處	
	肺	脾	肝	腎	立於人
性	籌策	經綸	行檢	度量	
	頷	臆	臍	腹	行其知
命	識見	威儀	材幹	方略	
	頭	肩	腰	臀	行其行

化의 法則과 四次元的 世界觀이 잠재해 있다는 지적⁹⁾이 있으나 紙面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天·人의 關係를 中心으로 東武의 本體論的 立場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資料 1〉에서 東武는 天機와 人事를 相應시켜 설정하였고 〈資料 5, 7〉에서 天은 大同하고 人是 各立하는 것이라 하여 天은 普遍者(抱括者)로, 人是 特殊者(個別者, 個體)로 간주하였다.¹⁰⁾ 또, 〈資料 4〉에서 天은 人的 耳目鼻口가 觀하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以上에서 나타난 天·人의 關係를 살펴보면 天은 普遍的 原理·普遍者·抱括者·先天的 構造·形而上者로서, 人是 個別的 事物·特殊者·個別者·個體·後天的 構造·形而下者로서 파악되어지며 서로 직접적인 相應關係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天·人의 關係는 性理學에서의 理·氣 二元論的 關係와 유사한 面을 내포하고 있으며 「性命論」에서 나타난 諸概念에 연역, 확대하고 있다.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表 3)

이러한 相應關係는 李¹¹⁾가 主張한 바의 陰陽象徵的 對待關係는 아니며, 性理學에서 나타난 理와 氣, 性과 情의 關係처럼 서로 區別되

고 차별되는 形而上·形而下(上·下)의 二元論的인 相應關係라 할 때 東武의 四象哲學은 性理學的 土壤위에서 자라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心性論

〈資料 8, 9, 10〉에서 東武는 人的 耳目鼻口는 好善之心으로, 肺脾肝腎은 惡惡之心으로 관련되었으며, 頷臆臍腹에는 驕矜伐夸의 邪心이, 頭肩腰臀에는 擅侈懶慾의 怠行이 있다고 하여, 人間的 本性은 好善·惡惡之心과 같은 가치 指向的인 것과 邪心·怠行과 같은 가치 부정적인 것이 同時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本性은 人體의 四象構造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資料 10, 11, 12, 13〉에서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堯舜과 같은 聖人의 그것과 같아서 이를 잘 存養하면 모두 聖人이 될 수 있다하여 聖凡一如의 立場을 보여주었고, 頷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臀의 怠行은 凡人이 聖人과 다른 점으로서 存心養性하고 修身立命한 然後에야 비로소 聖人의 知·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聖凡一如의 立場을 보여주고 邪心과 怠行을 잘 다스릴 것을 경고하였다.

〈資料 14〉에서 東武는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發露되는 連유를 설명하고,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은 다같이 公平無私한 것으로 가치 指向的임을 말하였다. 또 頷臆臍腹의 知와 頭肩腰臀의 行은 私心과 慾心으로 말미암아 博通과 正行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여 私心(邪心)과 慾心(怠行)은 다같이 가치부정적임을 말하였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를 「性命論」보다 먼저 저술된 「格致彙」에서의 心性論과 비교하면서

〈表 3〉

天機	天	性	知	大同	博通	耳目鼻口	頤臆臍腹	
人事	人	命	行	各立	獨行	肺脾肝腎	頭肩腰腎	
好善	邪心	知人	腎人	心	慧覺	德	資心	心體
惡惡	怠行	愚人	不肖人	身	資業	道	資氣	氣局

다시 考察해 보고자 한다.

獨行篇(1882年 저술)에서는 心을 理心(仁義禮智)과 利心(鄙薄貪懦)으로 區分하고 人性을 理義와 欲利로 區分하여 가치 指向의 心性(理心, 理義)과 가치부정적 心性(利心, 欲利)의 二元的 관계로 파악하였다.(資料 23)¹²⁾

또한 〈資料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大學」의 四心에서 유추하여 鄙薄貪懦의 四心을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心을 四象類型으로 類型지었다.¹³⁾

儒略篇(1890年 저술)에서는 「大學」의 四心과 鄙薄貪懦之心, 「孟子」의 四端之心(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과 仁義禮智之心등을 중심으로 40여종에 이르는 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들은 四象類型으로 나타난다.¹⁴⁾

反誠箴(1893年 저술)에서 心은 太極之心(中央之心), 兩儀之心(心身之心), 四象之心(事心身物之心)으로 나타나 本體論的 立場에서의 心을 보여주었으며(資料 21, 25)¹⁵⁾ 君子之心(易知之心)과 小人之心(難知之心)으로 二元的인 分類를 하기도 하였으며(資料 26), 人心과 道心, 理心과 敬心으로 分類하기도 하였다.(資料 27)

〈資料 28〉에서는 性理와 心欲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性理는 純善한 것이라 聖人·君子·小人이 一同하는 것으로 易知에 歸屬된다 하

였고, 心欲은 善惡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聖人·君子·小人이 萬殊하며 難知에 歸屬된다고 하여 그의 心性論을 여실히 보여준다.

要件대, 東武는 「格致彙」에서 心性을 論함에 있어 經學的 立場에서의 二元論的 概念을 수용하면서 이를 다시 四象類型으로 설명함으로써 여러 側面에서 心性을 파악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性命論」에 이르러서 心性과 人體의 四象構造와의 結合을 통하여 더욱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이는 다시 「四端論」에서 心性과 人稟臟理와의 관계 설정을 통하여 四象醫學理論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3) 人間觀

東武는 理想的 人間像으로서 堯舜을 들어, 그와 같은 聖人이 되는 것이 人間의 最高目標을 암시하였다.(資料 11, 12, 13)

이는 孔子에 있어서의 君子·聖人(人間의 本質인 仁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實現시키는 사람)¹⁶⁾, 「孟子」에 있어서의 大人(인간의 본성인 仁義禮智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는 사람)¹⁷⁾, 「中庸」에 있어서의 君子(인간의 본성인 中과 誠을 깨쳐서 사회에 실현시키는 사람)¹⁸⁾, 「大學」에 있어서의 理想的 人間像(明明德하고 親民하는

람) 19)의 개념을 모두 抱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理想的 人間像인 聖인에 對하여, 聖인이 아닌, 그래서 聖인이 되고자 希求하는 凡人들을 衆人이라 하여 聖인과 衆人の 차이점을 <資料 30,31>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聖인이나 衆인이나 耳目口鼻 肺脾肝腎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天理의 變化에 있어서 一同하기 때문에 本性에 있어서는 같은데, 다만 衆인에 있어서는 그 本性이 私慾에 가리우기 때문에 聖인처럼 聽視言貌와 學問思辨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 人慾에 있어서는 聖인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東武의 思考는 衆인도 努力하여 私慾을 제거하고 人間の 本性을 찾으면 聖인이 될 수 있다 한것으로 ‘下學而上達’하는 積極적 人間觀을 보여준다.

또 東武는 人間の 종류를 그의 複合四象構造와 연결지어 분류하고 있다.(資料 15,16) 즉, 耳目口鼻의 好善之心을 바탕으로 天(天機)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知人이라 하고,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을 바탕으로 人(人事)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賢人이라 하였고, 頤臆臍腹에 있는 邪心을免하지 못하는 사람을 愚人이라 하고 頭肩腰臀에 있는 怠行을免하지 못하는 사람을 不肖人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東武는 人間の 等級을 그의 四象觀에 기초하여 4가지 종류도 나누어서 그 屬性을 밝힘으로서 各各의 本性을 찾아서 努力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4) 實踐論

東武에게 있어서의 實踐論은 모두 知行論으로 要約된다고 할 수 있다.

<資料 17>에서 天은 人間에게 慧覺과 資業으로서 性·命의 概念은 人間형성의 구조적 요소인 20) 동시에 人間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天의 理法이며 人間이 人間되는 바의 이치를 말한다. 따라서 이 性·命인 바의 慧覺과 資業은 人間이 반드시 實踐해야 하는 大命題이다.

<資料 18,19>에서 慧覺은 諸般百善을 실천하는 倫理的 課題로, 資業은 諸般百用을 실천하는 日用生活的 課題로 설명되어지고, <資料 17>에서 이러한 慧覺으로부터 德이, 資業으로부터 道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以上에서 東武는 人間이 당연히 實踐해야 하는 課題로서 性-慧覺-德, 命-資業-道의 관계를 제시하였던바, <資料 20>에서는 好人之善而我亦知善하는 것이 至性之德이고 惡人之惡而我不行惡하는 것이 正命之道라 하여 그 方法論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好人之善而我亦知善’은 智를 말하고 ‘惡人之惡而我不行惡’은 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知行이 쌓이면 道德을 이루게 되고, 道德을 이루면 그가 바로 仁聖과 無二하게 되는 까닭에 道德은 바로 知行이고 性命또한 知行인 것이다.

이렇게 東武의 實踐論의 要約이라 할 수 있는 知行의 개념은 <資料 4,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本體論的 立場에서는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이 行하는 것으로서 博通者인 性, 獨行者인 命과 연관을 갖는다.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表 4)

<表 4>

性-博通者	—————	慧覺-德-知
		(籌策·經綸·行檢·度量)
命-獨行者	—————	資業-道-行
		(識見·威儀·材幹·方略)

이를 바탕으로 그의 知行論을 總括한다면, 知行은 다름이 아니라, 博通者인 籌策經綸行

檢度量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여 好善함으로써 慧覺을 실천하는 것이 性에 따르는 것(率性)이고 獨行者인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여 惡惡함으로써 資業을 실천하는 것이 命을 따르는 것(順命)이며, 率性 順命함으로써 仁聖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東武의 知行論은 그의 本體論的인 立場과 연관을 갖는 것인 바, 知와 行은 동시에 實踐되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임으로서 朱子の 先知後行論이나 陽明의 知行合一論과는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²⁾²²⁾

Ⅳ. 結 論

以上에서 「性命論」에 나타난 本體論, 心性論, 人間觀, 實踐論등을 中心으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性命論」에 나타난 東武의 本體論的인 立場은 四象類型과 四象構造 및 複合四象構造로 나타난다.

2. 「性命論」에서 드러난 複合四象構造는 哲學에 있어서의 本體論的인 概念과 人性論的인 概念들이 人體의 四象構造와 복잡하게 結合된 것으로서 四象體質醫學의 醫學的인 原理를 제공하는 중요한 端緒가 된다.

3. 東武는 人間의 心性에 가치지향적인 것과 가치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가치지향적인 면에서의 心性은 聖凡一如의 입장을, 가치부정적인 면에서의 心性은 聖凡不如의 입장을 보여 存心養性할 것을 강조하였다.

4. 東武에게 있어서 心性은 人身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性命論」에서 그는 心性이 人體의 四象構造와 結合하고 있는 構造的인 樣狀을 보여주었고, 이는 「四端論」에서 人稟臟理와 太少陰陽人의 性情과의 關係 설정으로 이어져 四象體質醫學理論으로 발전한다.

5. 東武는 理學的인 人間像을 堯舜과 같은 聖人에 두었고, 누구나 努力여하에 따라 聖人이 될 수 있다고 하여 積極적 人間觀을 피력하였고, 人間의 等級을 넷으로 나누어 그 屬性을 밝힘으로써 各各의 本性을 찾아서 責心, 責氣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6. 東武의 實踐論은 知行論으로 要約되며, 그것은 그의 本體論的인 立場과 연관을 갖는 것인바, 知와 行은 동시에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라 하여 종래의 儒家哲學에 있어서의 知行論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7. 東武 李濟馬의 四象觀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으로 「格致藥」와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經學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高炳熙·宋一炳, 李濟馬의 心論에 關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第5卷 第1號, 1984.
2. 金鎮成, 李濟馬의 知行論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5.
3. 朴一峰, 周易, 서울, 高文社, 1986.
4. 裴宗鎬, 韓國儒學史,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5. 宋一炳, 四象醫學의 心慾論에 對한 考察, 全國韓醫學 學術大會, 發表論文, 1982.
6. 延世大學校 出版部, 東洋哲學의 本性論과

- 人性論, 서울, 1986.
7. 李乙浩, 韓國改新儒學試論, 서울, 博英社, 1982.
8. 李濟馬, 格致彙, 咸興, 韓國弘方, 1924.
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大韓四象醫學會, 1972.
10.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